영암군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 공청회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16~25일 11개 읍·면 설명회

암군이 전 군민을 상대로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 정책' 설명에 나섰다.

주민 기본소득・배당금 지급 계획

영암군은 16~25일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을 찾아가는 'RE100 영암, 햇빛연금 실현-영암군 에너지 기본소득 주 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영암군은 지난 7월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허브-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에너지 대전 환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발전사 업 등으로 얻는 수익금을 영암군민에게 나누는 내 용도 담겨있다.

영암군은 공청회에서 정책발표와 함께 삼호읍• 미암면 간척지에 1190MW, 영암호 일대에 427MW 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한다.

영암군은 최종 목표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수익으로 전체 군민에게 해마다 에너지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게는 배당 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가칭 '에너지 전환 기금'도 마련해 취약계층에 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직업 전환 교육 등도 추진한다.

영암군은 주민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에너지 기 본소득 로드맵'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영암군 에 너지 대전환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균형발전 모델 창출,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굵직한 정책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포함해 군민 이익과 직결되도록 로드 맵을 만들어 성공적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개화한 진도 운림산림욕장 꽃무릇

진도 운림산림욕장 꽃무릇 붉은 물결 장관

10월5일까지 야간 개장

진도군이 꽃무릇 개화기간에 맞춰 10월5일까지 운림산림욕장의 편백 쉼터 구간을 야간 개장한다. 꽃무릇은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슬픈 추억, 환생 등의 꽃말을 품고 있다. 산림욕장 내 산책로를 따라 2022년부터 2025년 까지 꽃무릇 약 50만 본이 식재됐다. 요양병원에 서 산림욕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쌍계사, 두목

재, 장미원(운림예술촌) 등 사천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붉게 피는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다.

야간 개장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 며, 편백 쉼터에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해 현재 개화 중인 꽃무릇을 가을밤에도 즐길 수 있게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의 아 름다움을 풍요로운 가을밤과 함께 즐기시기를 바 란다"면서 "운림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현장 안내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 대전환 포럼…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국내외 전문가 3명 발표 항만 물류 강화 등 전략 논의

목포가 미래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 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다.

지난 13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목포대전환포럼은 'Blue Gateway, 목포;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 모 색'을 주제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제성에 기반해 형성된 목포를 재 조명하고,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 쟁력을 확보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하게 과거 성과와 현재 한계를 진단하는 수 준을 넘어, 목포가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항만・물 류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비 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항 이후 철도와 항구가 맞닿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3대 항만, 6대 도시로 성장했 던 목포는 현재 세계 물류 재편과 관광 수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이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도 시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3명이 연사로 나서 다

양한 관점에서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압둘라흐만 알 술탄 박사(사우디아라비아



지난 13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동 다목적실에서 'Blue Gateway, 목포;글로벌 도시 경쟁 력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목포대전환포럼이 열렸다.

Silky Systems CEO)는 'Blue Gateway: Mokpo's Port-Air-Rail Advantage '라는 주제 로 발표하며,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광역 물류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목포가 중동·동북아 교역의 거점이 될 전략적 가치를 조명했다.

박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An Idea of Cooperative Projects in the Mokpo Port'를 통해 지역・국가・해외 파트너십을 연계한 공동 프 로젝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영수 세한대학교 교수는 'Blue Gateway, 목포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모색' 발표에서 관광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역사·해양 자원의 재정립을 통한 국제 관광도시 전략을 제 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항만·물류 기능 강화, 글로벌 관광 도시 성장 전략, 해외 협력 과제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체납 지방세 카톡 전송 징수 효과 '톡톡'

징수액 전년 대비 53% 늘어

영광군이 지방세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 효과를 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달 5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했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체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 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금융·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으로 납부할 수 있어 체납자의 민망함을 덜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다만, 2G폰 사용자와 법인사업자 등 모바일 전 자고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체납자에게는 기 존과 같이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차 전송 이후 지난 5일까지 체납액 1만1379 건, 6억2699만원을 징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 (7339건, 4억908만원) 대비 4040건, 2억1790만 원(53.3%) 증가한 수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주민들의 바쁜 일상과 빠르 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 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19일 목포대서 신안 비금초 100주년 학술회의

염전기술원 양성소 등 집중 조명

신안 비금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초 교부설 염전 영업기술원양성소 등 비금도의 지방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회의가 오는 19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강당에 서 열린다.

학술회의는 비금초교100주년기념사업회와 목 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전남교육청·신

'비금초교 부설 영업기술원 양성소의 실제와 의 미', '비금뜀뛰기 강강술래', '비금도 지명의 특징 과 현재적 복원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 와 교수·지역연구자·신안군 담당공무원 등의 토론 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100주년을 맞은 비금초교 에 6.25전쟁 당시 부설로 설치됐던 염전 영업기술 원 양성소에 대한 연구발표도 예정돼 있다.

전쟁 중 소금 증산의 긴박성으로 남한에서 유일

하게 천일염전이 있는 비금도에 기술원 양성소를 만들어 기술자를 육성했었다는 내용이 공개된다.

또 양성소 수료자들이 중심돼 전남북은 물론 충 남 해안에 염전을 축조했고 1956년 소금 자급자족 달성의 기반이 됐다는 일화도 소개된다.

기념사업회는 학술회의를 계기로 비금초교 양 성소 자리에 기념비와 연혁 안내판 설치, 국립소 금박물관 건립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단순한 100주년 기념행사 가 아니라 지방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그 역사적 문 화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는 계기가 되도 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쓰리GO 여행' 관광객에 10만원 지원

'먹Go 자Go 즐기Go' 가을 프로그램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 티브 지원사업 '해남쓰리Go?먹Go! 자Go! 즐 기Go!' 가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해남쓰리Go'는 해남군을 방문해 1박 이상 체 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절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2인 이상의 관외 관광객이며, 1박2 일 이상 해남에 머무르며 발생한 소비 영수증을 제 출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봄, 여름 프로그 램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며 모집이 조 기 마감됐고, 100여 팀이 참여했다.

신청은 방문일 최소 3일 전까지 해남문화관광재 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해남의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한 가을 여행을 해남 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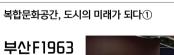


2025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062-220-0550 팩 스:062-222-0195









철강공장의 과감한 문화재생



참신한 기획과 명품 해설로 관객 매료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명작시리즈'

유럽 소도시 기행⑤ 페이메이르의 시선 따라 걷는 네덜란드 델프트



호남의 누정시즌2③-담양 명옥헌 누정 가운데 두고 연못과 정원 살뜰한 조화

